

게시판



사찰꽃살문 사진전 국립진주박물관 전시실에서 사찰꽃살문 사진 순회전(사진)이 5월 29일까지 계속된다. (055)742-5951

실버미팅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숙) '행복한 성장담 센터'에서는 6월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버미팅' 대상자를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만 60세이상, 좋은 인연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02)929-7950

무료급식 봉사자 모집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무료급식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시접수 중. (031)431-9114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 요건과 이용 코스는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704-9555

케어복지사 과정 사회복지법인 수요사(주) 무교 수요사회복지대학에서는 케어복지학과 4기 수강생을 선순 모집하고 있다. 9월부터 시작하는 6개월 과정 수료 후에는 케어복지사 2급·파주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02)313-2398

불교상당교육 조계사(주) 원담는 기초교리를 이수한 불자들 중 상당에 관심있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제7기 불교상당전문교육생'을 25일까지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02)732-217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오	추	모	페
일	반	상	대
개	화	보	이
이		강	호
트	리	오	공
	태	아	무
담	석	증	사

파릇파릇 싱그러운 봄과 여름 사이

숲길에 들어서면 마음 맑아져요

이즈음의 신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하다. 신록을 대하고 앉으면 신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별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이양하의 '신록예찬(1947)' 中

초목의 새 잎이 여리게 푸른빛을 발하는 신록의 계절 5월의 끝자락, 사람들은 저마다 푸른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숲을 찾아 깊은 산호흡을 해보고, 자연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 속까지 시원해진다. 밖으로 나가보자. 차를 타고 좋고, 걸어도 좋다. 가까운 전통 사찰을 찾아 건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는 기분도 그만이다.

시간에 쫓기는 도시민들은 갑자기 과격한 근력운동을 하기보다는 걷기로 봄에 부담을 줄이면서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하루에 20~30분의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효과적이다.

집에서 가까운 야산이나 주변의 공원에 조성된 산책로를 걸

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 시민이라면 경복궁, 덕수궁 등 시내 주요 궁을 걸으며, 가슴 벅차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청와대 경호원과 마주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경복궁에서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는 호젓한 길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시간이 있다면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평창 월정사와 공주 마곡사등 사찰에서 운영하는 걷기 명상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중요한 것은 그저 신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마음 한 자락에다 묻어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저 계절을 바라보기만 해도 삶의 힘, 자연은 고스란히 내어준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news.com

가볼만한 나무가 있는 길

장소	가는 길	산책코스 및 포인트	하나 더 찾을 거리
서울 경복궁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하차	경복궁 내 및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	조계사, 법연사 불일미술관, 인사동 등
서울 남산	지하철 4호선 회현 또는 명동역	남산 1호터널에서 서울과학고등학교-남산도서관-식물원으로 이어지는 길	남산식물원, 서울타워, 서울에니메이션센터, 한옥마을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버스 또는 택시 이용해 삼청공원 입구에서 하차	삼청경복궁 뒤쪽에 솟아있는 북악산 능선의 동서 방향, 드라이브 코스로 제격	북한산, 팔각정, 서울성곽, 삼청각, 길상사 등
서울 석촌호수	8호선 석촌역 1번 출구	석촌호수와 700여 주에 이르는 나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길	올림픽 공원, 위례성길 등
충남 천안 예안 이씨 집성촌 민속마을	고속철 천안아산역에서 공주쪽으로 차로 15분	영화 '취화선'의 배경, 들머리와 조선시대 가옥 등이 볼거리	설화산 계곡, 명사성 고대, 현충사, 독립기념관 등
강원도 평창 월정사 전나무숲	고속버스 진부면 하차 -월정사행 버스	월정사 일주문에서부터 심어져있는 울창한 전나무 숲	성원사 적멸보궁, 비로봉 등
경북 청도 운문사 숲	대구 청도 경산 등지에서 운문사행 버스 이용 가능	특히 굽은 소나무가 볼거리	운문사 자연휴양림, 운문담 등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청량리역 버스정류장에서 광릉대-봉선사행 버스 차례로	근처 수목원이 많아 수목 종류가 다양하고 삼림욕 하기 좋음	광릉수목원, 불암사, 모란미술관 등
부산 이기대 자연공원	부산시내에서 용호동 구종정에서 하차, 공원 표지판 따라 800m	이기대 어울마당-바닷가-잠바위-난골-공원순환도로를 따라 바다 풍경과 해송 오솔길을 볼 수 있음	백연사, 오륙도, UN묘지 등
광주 5·18 기념공원	광주 시내버스 이용해 5·18문화기념관 하차	대동광장-팔각정-무각사 -오월루-학생교육문화회관	5·18 공원 참배, 광주 시내 일대 등



신록의 계절 5월 말의 경복궁 돌담 주변길은 푸른 빛으로 넘실대고 있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시대 대표작가와 만난다

만해마을서 정현중 시인 등 문학 강연



6월부터 '토요문학 아카데미'가 열리는 만해마을.

우리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과 전국의 문화 독자들이 교류하는 자리가 백담사 만해마을에 마련된다.

백담사 만해마을은 12월 10일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시대 대표작가와의 만남-토요문학아카데미'를 연다.

'문학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시인 정현중(6월 11일), 소설가 김병아(7월 9일), 시인 정호승(8월 20일), 소설가 조정래(9월 10일), 시인 문정희(10월 8일), 소설가 김성동(11월 12일), 소설가 전상국(12월 10일) 등 우리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강사로 나선다. 강연 및 작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수강료 무료.

한편, 만해마을은 강좌에 전념하고 있는 전업작가 및 원로·중진 문인들에게 '만해마을 문인의 집'의 집필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단기 1개월·장기 4개월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신청자를 선별한다. (033) 462-2304

강산재 기자

전시



지난해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서울국제도서전 6월 3일 개막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책 제작방법을 보고 싶다면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과 인도양홀에서 열리는 '2006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가 보자.

'책으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는 국내외 출판사와 잡지사, 저작권 에이전시, 서점, 유통업체 등 126개사가 참석하며 해외에서는 20개국 166개사가 부스를 설치해 각자의 출판물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는 독자들이 책과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특별 부대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직지흥보 특별 전시'에서는 '직지심체요절' 전시와 금속활자의 제작과정 소개, 고인쇄체형 코너 등이 마련된다. 이오덕 운동주정지용 기행도 최인호 한승원 박완서 등 유명 작가들의 육필 원고를 볼 수 있는 '유명작가 육필원고전'과 이원복 김진경 등의 작가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도 선보인다. 이밖에 출판 산학협동 포럼, 해외 북 아티스트 초청 북아트 세미



냉혹한 가장 김준평 일대기

피와 뼈 김득 최양일 출연 기타노다케시 스즈카교과 등급 18세 이상

2005년 마이니치 영화 포럼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화 '피와 뼈'.

이 영화는 양석일 작가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동명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로, 오사카로 건너간 제일 한국인 김준평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10대중반 '재패니스 드림'을 안고 제주도에서 일본 오사카로 건너간 실존인물 김준평,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력적이며 탐욕적으로 살아간 잔인한 마초의 생애를 잔혹하게 그려낸다. 그의 삶의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어도 관객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며 과연 '인간의 피와 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묻는 감독의 질문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으로 일본에 건너간 한 조직의 보스까지 올라선 김준평은 영화 속에서 일찍이 본적 없는 파격적인 캐릭터다. 폭력적이면서 물인정하고 동시에 냉혹하고 잔인하다. 피블라인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한다.

영화에서 비춰진 준평 일가의 삶은 단지 영화적 허구가 아니다. 어쩌면 1900년대 중반까지의 동양의 가장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며 그 시대를 산 우리네 가족사의 비망록은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news.com

방송 프로그램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창원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3일 06:00 불교간좌	23일 08:00 명상음악산책
24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4일 15:10 명상음악
25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5일 14:25 불교TV 메디컬
26일 07:05 아침저널	26일 15:10 휴먼다큐
27일 09:05 행복한 미소	27일 16:40 향토음식기행
28일 14:05 진시몬의 낭만라디오	28일 16:20 부처님경전이야기
29일 10:00 라디오 법회	29일 15:20 산중대담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5월 27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5월 일 아침 8:35-09:20) 동양 철학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반야심경 고급 손목시계

마하물에서 고급 시계가 새로 나왔다. 큐빅 13피스와 6시와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글자를 새긴 시계는 스위스 룬다사의 부속품을 채택해 견고함과 품격을 더했다. 브라운과 블랙 두 가지 색상, 원형 또는 아크형의 두 가지 형태로 4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스텐 본체, 37입방수.